

보도시점 2024.3.27.(수) 배포시점 배포 2024.3.27.(수) 11:30

##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 가동

국민 관점에서 방송·통신·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맞손

방송통신위원회(이상인 부위원장,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강도현 차관,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7일(수) 오전 양재 엘타워에서 양 부처간 정책 협의회를 가동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디지털 현안에 대한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는 방송, 통신 등 민생 분야 이슈에 대한 양 부처의 협력 추진이 중요해진 만큼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양 기관은 방송, 통신을 포함한 AI·디지털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중요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와 함께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강도현 2차관은 “과기정통부-방통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원팀이 되어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인 부위원장은 “오늘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함께한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두 부처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방송·통신·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끝.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남철	044-202-6120
		담당자	서기관	이윤선	044-200-6121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책임자	과 장	강필구	02-2110-1320
		담당자	사무관	이성용	02-2110-1383

